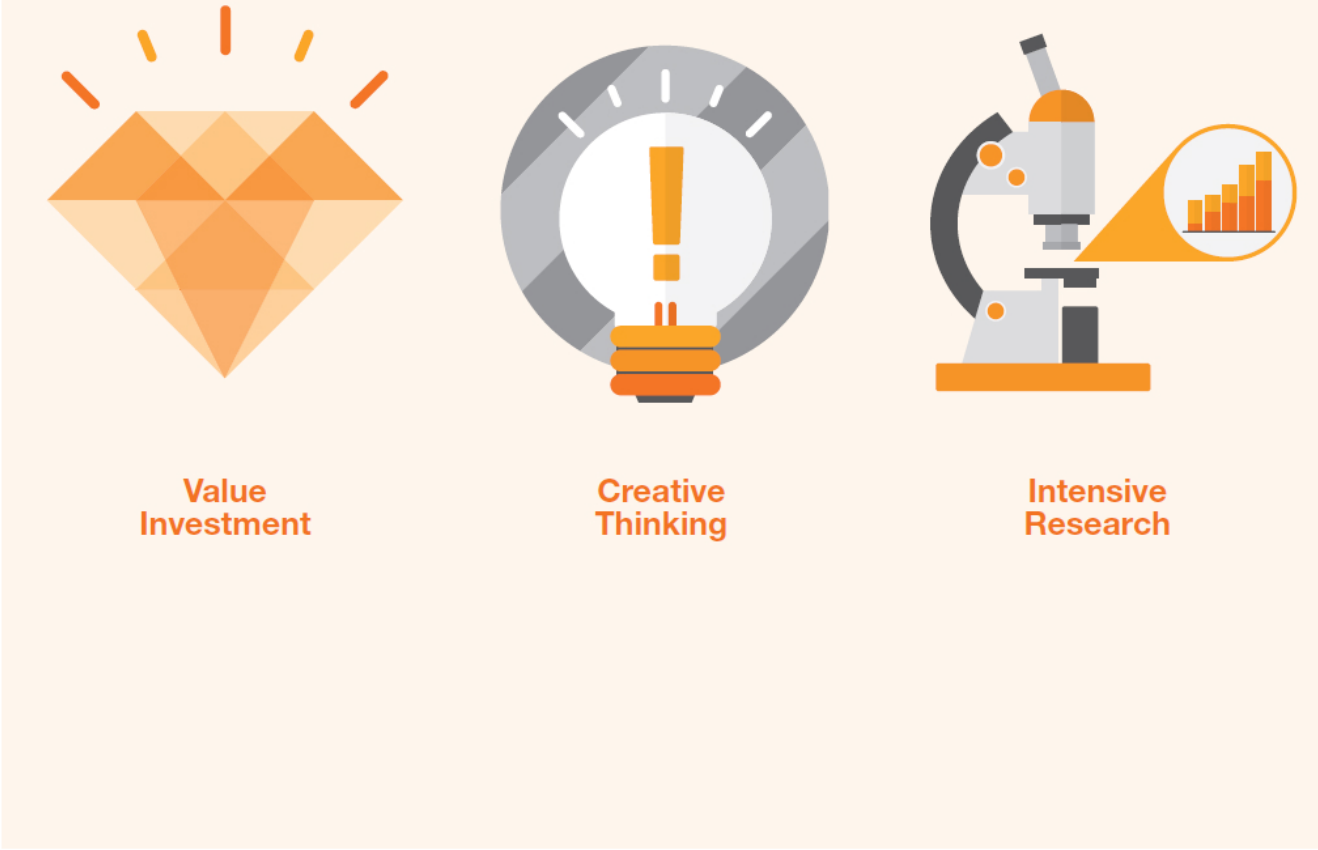
자산운용보고서

한화100세시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운용기간
2020.07.16 ~ 2020.10.15



Enriching Your Tomorrow
한화자산운용

CONTENTS

펀드매니저 레터

1. 운용경과
2. 운용계획

상세 운용보고

1. 펀드개요
2. 수익률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의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이 가입한 [한화100세시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화100세시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한국씨티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국민은행,신한은행,한화생명외 2개]을(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확인 방법 안내

한화자산운용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이메일
www.hanwhafund.com	dis.kofia.or.kr	이메일 수령 신청
http:// www.hanwhafund.com 접속 → 공시 펀드공시	http://dis.kofia.or.kr 접속 (상단)전체메뉴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입력	가입하신 판매사에서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레터

(단위: %)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5년
펀드	2.59	8.51	6.23	7.33	20.99
비교지수대비성과	-0.62	-2.42	-1.48	1.21	-0.03

- 상기 펀드의 투자실적은 펀드의 종류형별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운용보고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펀드의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01 운용경과

분기 초반 강세 이후 미 기술주 조정, 미 대선 불확실성, 코로나19 재확산 이슈 등으로 조정세

[주식]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져 감기를 조심해야 될 날씨입니다. 코로나19로 사소한 감기도 오해가 될 수 있는만큼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쓰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11월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분기 운용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2020.7.16 ~ 2020.10.15) 펀드 기준가는 비교지수 대비 -0.62%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분기 국내 주식시장은 KOSPI 7.24%, KOSPI200 7.41%, KOSDAQ 8.08%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분기 초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둔화되고 조정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다소 조정 받은 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영업이익 9조→11.5조)조정에 따른 주가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9월 후반 들어서며 미 증시 조정 부담, 미 대선 불확실성, 유럽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다시 조정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26.6%), 운수장비(+26.0%), 화학(+16.6%), 운수창고(+11.9%)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6.9%), 의약품(-3.2%), 은행(-2.1%), 건설(-1.2%)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0조 8,727억원 매수, 외국인은 -2,264억원 매도. 기관은 -10조 6,315억원 매도(금융투자 -1조 7,735억, 연기금 -3조 8,558억, 투신 -2조 6,389억, 사모펀드 -1조 2,568억)를 보였습니다.

[채권]

해당 운용기간 동안 국내채권 시장은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의 AIT 도입과 인플레 기대심리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유럽의 코로나 확산 우려로 상승폭을 일부 되돌렸지만, 10월초부터 미 대선 정국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고, 당선 이후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는 재차 상승했습니다. 채권모펀드는 해당기간 동안 듀레이션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크레딧 투자비중을 BM대비 높게 유지했습니다만 10월초 금리 상승기에 듀레이션을 BM대비 확대운용하여 BM대비 소폭의 초과성과를 달성했습니다.

02 운용계획

미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식]

미 대선이 다가오며 관련 이슈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공약 차이가 큰 만큼 지지율 흐름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민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양책의 합의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역으로 한 달 뒤에는 재정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기 정상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민감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에 힘이 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회복중인 경제지표", "달러 약세 지속",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등은 기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판단됩니다. 수급 측면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10억 → 3억)에 따라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 부담이 존재합니다. 대주주 요건에 변화가 있던 2017년말(25억 → 15억), 2019년말(15억 → 10억)에 개인들은 12월에 각각 -5.2조, -4.8조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연초 이후, 유일한 매수주체였던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은 6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매도 규모는 이전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연기금의 매수여력 부재, 백워데이션 지속과 배당 감소 우려에 따른 배당차익 유입 제한 가능성, 외국인들의 DM에 대한 선호지속 등 연말 수급환경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계량모델을 기반으로 한 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KOSPI200의 정기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이벤트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채권]

향후 채권시장은 11월 미국 대선 영향을 반영하는 가운데 국내외 펀더멘털 개선세 지속 및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대선의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모두 대규모 인프라투자, 재정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채권에는 대체로 중립 또는 약세 요인으로 해석되어 10월 채권시장이 이를 프라이싱할 경우, 금리는 다소 상승압력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로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겨울철 독감과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잠재해 있어 금리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현지시각 10월 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으로 미국 대선 일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하여 대선레이스에 다시 참여할 경우 현재 예정된 11월 3일 선거인단 선출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Best 시나리오). 대선 일정 연기는 양당 합의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바이든의 당선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동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Tail Risk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에 실패하여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경우인데, 1) 이미 우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2) 대부분의 주에서 대선후보 변경시의 절차를 명시해놓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 선출 및 그 이후의 일정들을 모두 연기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시장에 높은 변동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채권금리는 단기적으로 큰 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금번 대선은 상원 교체(35석)도 예정돼 있는데, 상하원 모두 민주당 장악시 바이든 후보의 증세, 규제강화 등의 정책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대통령보다는 의회구성이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주요 key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1)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 다수당일 경우, 현 정책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채권시장에 중립적, 2)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중기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금리상승 리스크 확대를 전망합니다. 하반기 이후 바이든 후보의 대선 당선확률이 높게 유지되어 왔음을 감안시 10월 금융시장은 바이든 당선 및 민주당 상원 장악 가능성을 일부 프라이싱할 것으

로 예상합니다.

- 상기 운용계획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 최세진

상세 운용보고

01 펀드 개요

기본정보 | 펀드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	한화100세시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증권펀드(혼합채권형),추가형,개방형,종류형,모자형		
최초 설정일	2006.01.16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운용기간	2020.07.16 ~ 2020.10.15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	한화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운용(54607) / 운용(54608) / C(BV447) / C-e(BV448)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판매회사	당사 홈페이지 참조 (www.hanwhafund.com)		
펀드의 특징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40% 범위 내에서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도 병행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현황 | 펀드의 당기말, 전기말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자산총액	4,550	4,497	-1.16
부채총액	-	-	0.00
순자산총액	4,550	4,497	-1.16

- 상기 항목은 운용펀드 기준입니다.

(단위: 원, %)

기준가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한화100세시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005.58	1,031.67	2.59
종류 C	1,002.10	1,026.32	2.42
종류 C-e	1,003.10	1,027.86	2.47

- 기준가격이란 :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 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가격을 말합니다.

02 수익률 현황

펀드의 구성 | 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의 비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코리아토탈본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한화퇴직연금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상기 도표는 현재 투자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펀드 만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자펀드 자산현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각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익률 | 펀드의 각 기간별 수익률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기준, 단위: %)

펀드명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20.07.16 ~20.10.15	20.04.16 ~20.10.15	20.01.16 ~20.10.15	19.10.16 ~20.10.15	18.10.16 ~20.10.15	17.10.16 ~20.10.15	15.10.16 ~20.10.15
운용펀드	2.59	8.51	3.17	6.23	11.04	7.33	20.99
비교지수	3.21	10.94	4.18	7.71	11.44	6.12	21.02
비교지수대비성과	-0.62	-2.42	-1.01	-1.48	-0.40	1.21	-0.03
종류별 현황							
종류 C	2.42	8.14	2.63	5.50	9.52	5.12	18.39
비교지수대비성과	-0.79	-2.79	-1.54	-2.21	-1.92	-1.00	-2.63
종류 C-e	2.47	8.25	2.79	5.71	9.96	-	-
비교지수대비성과	-0.74	-2.69	-1.39	-2.00	-1.49	-	-

펀드의 비교지수 KOSPI200 40%, KIS-Reuters 종합 60%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한화100세시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C 미운용기간 .. ~ 2017.08.27

추적오차 | 인덱스펀드의 추적오차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1년
1.48	2.09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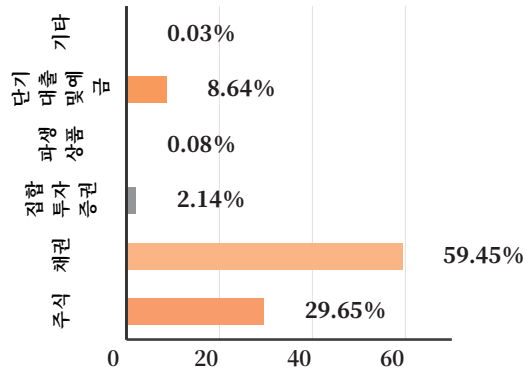
- 추적오차란 일정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특정 비교지수의 변동을 얼마나 충실히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해당 인덱스펀드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로 기재합니다. 추적오차 수치가 적을수록 해당 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0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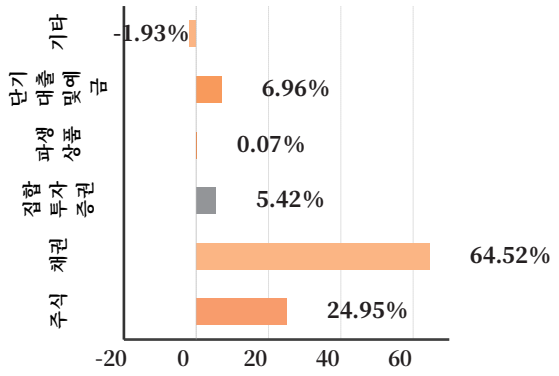
자산구성현황 | 펀드의 자산구성 현황 및 통화별 업종별 국가별 투자비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구성현황은 투자자가 가입한 자펀드의 실제 자산구성 내역이 아니고,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과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당기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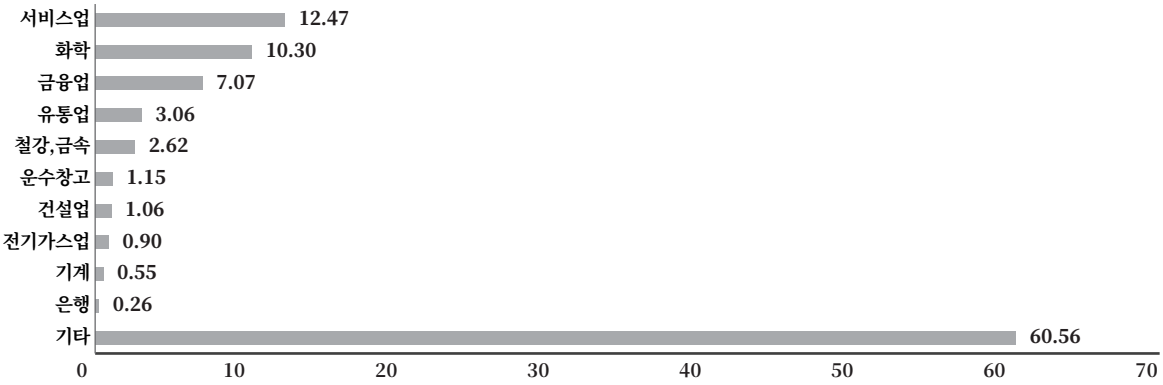
통화별 투자비중

( ) : 구성비중 / (단위: 백만원, %)

통화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333	2,673	-	96	4	-	-	-	-	389	1	4,497
	(29.65)	(59.45)	-	(2.14)	(0.08)	-	-	-	-	(8.64)	(0.03)	(100.00)
합계	1,333	2,673	-	96	4	-	-	-	-	389	1	4,497
	(29.65)	(59.45)	-	(2.14)	(0.08)	-	-	-	-	(8.64)	(0.03)	(100.00)

업종별 투자비중 - 국내주식 Long(매수)

코스콤 기준 / (단위: %)



주요 자산보유 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총액의 5% 초과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 Long(매수)

(단위 :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삼성전자	6,571	394	8.77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채권01375-3006(20-4)	294	293	2020.06.10	2030.06.10	-	RF	6.51
국고01125-2509(20-6)	280	280	2020.09.10	2025.09.10	-	RF	6.23
국고03750-3312(13-8)	154	197	2013.12.10	2033.12.10	-	RF	4.38
국고02625-3509(15-6)	140	161	2015.09.10	2035.09.10	-	RF	3.58
신한캐피탈 291	140	150	2015.03.06	2025.03.06	-	AA-	3.34
엘에스전선19-2	140	146	2018.02.09	2023.02.09	-	A+	3.25
대웅제약13	140	142	2019.04.25	2022.04.25	-	A+	3.15
한라홀딩스6-3	140	141	2013.12.06	2020.12.06	-	AA-	3.14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중
예금	한국씨티은행		389	.23		8.64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의 펀드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주소 | http://dis.kofia.or.kr)
- 단, 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04 투자운용 전문인력 현황

투자운용인력 |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개,억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현황 (해당 펀드 제외)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세진	책임운용전문인력	10	5,475	1	699	2109000880
이인재	운용전문인력	1	200	-	-	2120000527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 최근 3년간의 펀드매니저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기간	운용전문인력
2015.07.30 ~ 2020.10.15	최세진
2020.06.19 ~ 2020.10.15	이인재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05 비용현황

총보수비용 비율 | 펀드에서 부담하는 총보수 비용비율과 매매 중개수수료와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연환산, %)

펀드명	구분	해당 펀드		상위 펀드	
		총보수 ·비용비율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	총보수 ·비용비율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
한화퇴직연금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전기	0.02	0.03	0.02	0.03
	당기	0.02	0.03	0.02	0.03
한화코리아토탈본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전기	0.01	0.00	0.01	0.00
	당기	0.01	0.00	0.01	0.00
한화100세시대퇴직연금인덱스4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전기	-	-	0.01	0.01
	당기	-	-	0.01	0.01
종류C	전기	0.70	-	0.70	0.01
	당기	0.70	-	0.71	0.01
종류C-e	전기	0.49	-	0.50	0.01
	당기	0.49	-	0.50	0.01

- 총보수 비용비율이란 운용보수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 ·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기타비용, 매매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2.78	0.06	2.85	0.06
판매회사	종류C	4.20	0.10	4.32	0.10
	종류C-e	0.12	0.05	0.12	0.05
신탁업자		0.33	0.01	0.34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14	0.00	0.15	0.00
보수합계		7.57	0.17	7.78	0.17
기타비용		0.13	0.00	0.13	0.00
매매중계수수료	단순매매, 중개 수수료	0.11	0.00	0.13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00		0.00
	합계	0.11	0.00	0.13	0.00
증권거래세		0.23	0.01	0.00	0.00

- 비율은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 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성과보수내역

- 해당사항 없음

06 투자자산 매매내역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 펀드의 매매량과 금액, 매매회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매매금액	수량	매매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	-	44	1	0.11	0.42

- 매매회전율이란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매매 회전율 추이 | 펀드의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

2019.10.16 ~ 2020.01.15	2020.01.16 ~ 2020.04.15	2020.04.16 ~ 2020.07.15
7.13	0.13	8.88

-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하여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매매회전율은 펀드의 운용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매매회전율이 높다고 해서 비용을 유발하는 펀드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펀드의 스타일, 규모, 시장상황에 맞춰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